

## 현지조사 후기

사회학과 석사수로 김진희

<2025년도 서울대학교 아시아연구소 현지조사 지원 사업>에 선정되어, 2025년 4월과 7월 중 중국 지린성 연변 조선족자치주를 방문해 석사학위 논문을 위한 현지조사를 진행했다. 본 조사는 연변 지역 조선족 마을 가운데 하나인 정암촌을 대상으로, 조선족 마을에서 농업과 토지가 어떠한 방식으로 자본화되고 있는지, 그리고 그 과정에서 민족 간 관계가 어떻게 재편되고 있는지를 살펴보고자 기획되었다.

이번 현지조사에서 주목한 핵심 문제는 조선족 마을의 토지를 둘러싼 변화였다. 개혁개방 이후 중국 농촌에서는 토지의 소유권, 경작권, 경영권이 분리되는 제도가 점차 확산되었고, 연변 지역 역시 이러한 제도 변화의 영향을 강하게 받고 있다. 특히 인구 유출이 심화된 조선족 마을에서는 토지가 더 이상 공동체 내부에서만 운영되지 않고, 외부 자본과 결합하거나 외래 경영자에게 이전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 이러한 토지 이전 과정은 단순한 경제 현상을 넘어, 마을 내부의 사회관계와 민족 간 경계를 재구성하는 중요한 계기가 되고 있다.

정암촌을 연구 지역으로 선택한 이유는 이 마을이 조선족 촌민의 이탈과 외부 농업 경영자의 유입이 동시에 진행되고 있는 사례를 비교적 분명하게 보여주기 때문이다. 이 마을에서는 조선족 촌민이 소유한 토지가 한족 출신의 외래 농업 경영자에게 임대되거나 위탁 경영되는 사례가 다수 확인되었으며, 이를 통해 농업 생산 방식과 마을의 일상적 풍경 역시 크게 변화하고 있었다. 이러한 맥락에서 정암촌은 조선족 농촌 사회의 변화를 미시적으로 관찰하기에 적합한 현장이라고 판단했다.



현지조사 기간 동안에는 마을 촌민, 외래 농업 경영자, 그리고 마을 간부를 대상으로 반구조화 인터뷰를 진행했다. 조선족 농민들과의 인터뷰를 통해서 토지 유전과 경작 중단 이유, 농업에서 이탈하게 된 개인적·가족적 배경, 그리고 외부 경영자에 대한 인식 등을 들을 수 있었다. 특히 토지를 직접 경작하던 시기와 외부에 토지를 맡긴 이후를 비교하는 서술은, 농업의 자본화가 촌민들의 삶에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를 구체적으로 보여주었다.



또한 외래 농업 경영자와의 인터뷰를 통해서 연변 지역으로 유입된 배경, 다른 지역과 비교했을 때 연변 농업 환경의 특징, 그리고 조선족 마을에서 농업 경영을 지속하는 데 따르는 제도적·사회적 조건에 대해 들을 수 있었다. 이를 통해 토지 이전이 일방적인 수탈이나 갈등의 문제로만 설명될 수 없으며, 지역 간 경제 조건과 농업 전략이 복합적으로 작동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마을 간부와 인터뷰에서는 토지 관리와 계약 과정, 민족 간 갈등이 발생했을 때의 조정 방식, 그리고 행정 단위에서 인식하는 마을 변화의 방향에 대해 질문했다. 이를 통해 제도적 차원에서 바라본 토지 이전과 실제 현장에서 경험되는 변화 사이의 간극 역시 살펴볼 수 있었다.

이번 현지조사는 문헌 연구만으로는 파악하기 어려운 조선족 마을의 일상적 변화와 토지 자본화의 구체적인 작동 방식을 직접 확인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 특히 토지를 매개로 조선족 촌민과 외래 경영자, 그리고 마을 행정이 맺는 관계를 입체적으로 관찰함으로써, 조선

족 농촌 사회의 변화가 단순한 민족 문제나 경제 문제로 환원될 수 없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다.

끝으로, 본 현지조사가 가능하도록 지원해 준 서울대학교 아시아연구소에 깊이 감사드린다. 이번 현지조사에서 얻은 경험과 자료는 석사학위 논문의 완성도를 높이는 데 중요한 밑거름이 될 것이며, 향후 연구를 지속해 나가는 데에도 큰 자산이 될 것이다.